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검찰 PROSECUTION SERVICE	 경찰 POLICE	 금융감독원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정배 (전화 02-2204-4312)</p>	2025. 4. 8.(화)
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	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	 방송통신위원회		주책임자: 합동수사단장 자료문의: 합동수사단 (전화 02-2204-4963)

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

“MZ세대 대포통장 유통조직” 적발

- 45개 유명법인 설립 · 대포통장 200여개 유통, 총책 등 9명 구속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☒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(합수단, 단장 홍완희)은 **MZ세대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대포통장 유통조직**을 수사한 결과, 약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적으로 개설·유통한 조직의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,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에 있음

※ 합수단은 '22. 7. 29.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**총 773명 입건, 288명 구속**

- 합수단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일부가 동일한 조직에서 개설된 정황을 토대로 금감원과 검·경이 '원팀'으로 수사하여, 《총책→모집책·관리책→내근실장·현장실장》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소위 “MZ세대” 범죄집단을 적발하였음
- 피고인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약 43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, 피고인들은 2억 5,000만 원 이상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임
-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대포통장에 대하여도 거래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, 합수단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음
-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어 엄벌하는 한편, 범행을 예방하고,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음

1. 공소사실 요지

- 총책 A, 관리책 B, 모집책 C는 공모하여,
 - '23. 12. ~ '24. 7.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·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실장급 조직원(D~I) 등을 영입하고,
 -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·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고,
 -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합계 43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

[범죄단체조직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

※ 그 외 조직원들 범죄사실은 [별첨] 『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』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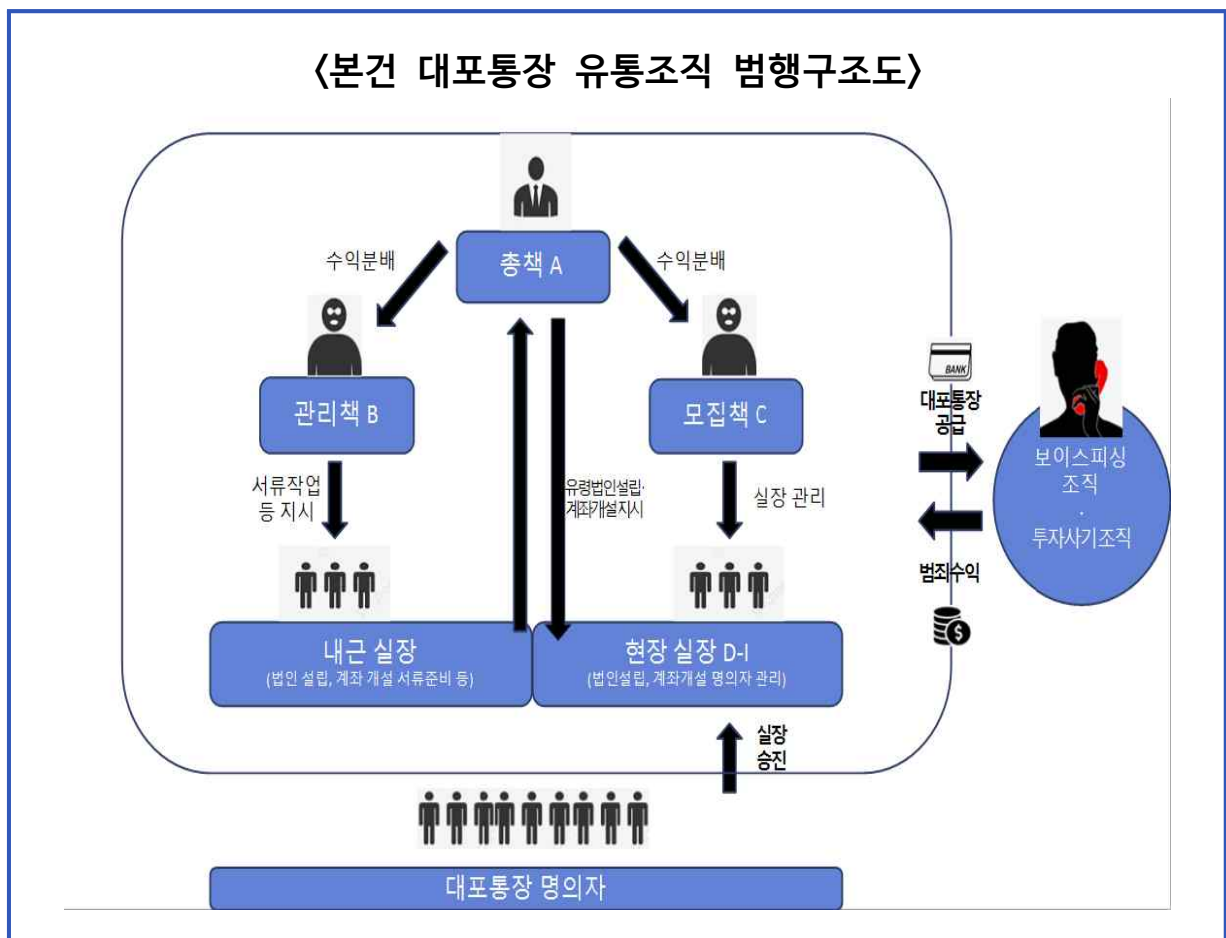
2. 수사 경과

- '24. 4. 금융수사협력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경찰팀 수사 착수
 - 법인·계좌 개설내역 분석 등으로 현장실장 D, 대포계좌 13개 특정
- '24. 8.~10. 총책 A 등 조직원 10명 특정, 추가 대포계좌 200개 특정
- '24. 8.~12. 총책 A, 모집책 C, 현장실장 D, E 각 구속 기소
- '24. 12.~'25. 2 부총책 B, 현장실장 F, G, H 각 구속 기소
- '25. 3. 총책 A, 모집책 C, 현장실장 D, E 추가 기소
- '25. 4. 7. 현장실장 I 구속 기소

3. 범행구조

○ 피고인들 범행 수법

- 피고인들은 89~96년생의 소위 MZ세대로,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하여 대포통장 개설 방법, 유통망, 조직 운영방법 등 범행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새로운 범죄조직을 개설, 운영함
- 본건 조직은 총책, 관리책, 모집책, 실장으로 직급체계를 갖추어 위계 서열을 가지고 운영되었고, 유명법인 명의자를 일명 ‘금쪽이’, ‘손님’으로 부르며, 명의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고, 보안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, 수사를 받을 경우 허위로 진술할 수 있게 대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함



II

수사의 의의

① 사업형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실체 규명

-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① 범행을 총괄하며 자금·물적 설비를 마련한 총책, ② 유령법인 명의자 등을 모집한 모집책, ③ 유령법인 설립·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준비한 내근실장, ④ 명의자들과 세무서, 은행을 방문하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현장실장, ⑤ 실장들을 지휘하는 관리책 겸 부총책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업하여 범행함
 - 조직원은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시하고, 명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규모를 확장하였음
-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하여 운영방식 및 유통망을 벤치마킹한 후 새로운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단시간 내 위계질서를 갖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완성하였음
 -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단계별로 점조직화되면서 역할에 따라 전문화된 개별조직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 확산하고 있는데,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됨
- 본건 조직원들은 명의자들에게 대포통장 유통처(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'블랙장', 도박범죄에 사용되는 '화이트장')를 선택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차등 지급*하고, 변호사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명의자의 가담율을 높였음
 - * 블랙장은 통장 1개당 300만 원, 화이트장은 통장 1개당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차등
 - 또한 명의자들에게 '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대출업자에게 주었다'는 대본을 공유하여 수사에 대비시킨 정황도 확인하였음

② 금융감독원과 검찰, 경찰의 유기적인 '원팀' 수사

-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(금융감독원, 국세청, 관세청, 방송통신위원회,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)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공고* 중 동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내역을 확인하였고, 검찰-경찰 합동 수사팀은 신속한 계좌 압수수색, 피해내역 확인, 가담자 검거 등을 통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하였음

* (채권소멸 사실공고)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이 소멸됨을 공지하는 제도

-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 및 단속을 담당하는 범정부·유관기관이 '원팀'으로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서, ▲금융수사협력팀의 자료분석 ▲경찰의 초기수사 ▲검찰의 법리검토 ▲검·경간 수사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으로 유기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음

* 검찰은 공범을 숨기려던 구속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공범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에 제공하고, 영장의 소명자료로 활용하여 청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수사를 완성하였음

③ 범죄수익 환수, 추가 피해 차단 등

- 또한 합수단은 경제적 이익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범행에 따른 수익을 박탈하여 종국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, 2억 5,44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·보전 조치함으로써 범죄유인 원인을 차단함
- 아울러 아직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에 유통하기 위해 개설·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에 대하여도 지급정지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요청하여, 추가 대포통장 유통 및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였음

Ⅲ

향후 계획

-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범죄조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하여 엄단하는 한편, 대포통장 유통 실태를 금융당국과 공유하여 범죄중단 및 피해예방을 위해 조치하였음
-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장의 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,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■■■

[별첨]

[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]

순번	피고인	지위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35세)	총책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,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1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합계 43억 7,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총책으로 활동하여 [범죄단체조직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4. 11. 22.) 추가 기소 (25. 3. 18.)
2	B (33세)	관리책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,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1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합계 43억 7,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리책으로 활동하여 [범죄단체조직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4. 12. 16.)
3	C (31세)	모집책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,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1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합계 43억 7,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리책으로 활동하여 [범죄단체조직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4. 11. 22.) 추가 기소 (25. 3. 18.)
4	D (30세)	현장실장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1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합계 43억 7,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[범죄단체 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 - '24. 1.~'24. 2. 대표통장 13개를 개설·전달하여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	구속 기소 (24. 8. 14.) 추가 기소 (25. 3. 19.)
5	E (31세)	현장실장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,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1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합계 43억 7,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장실장으로 활동하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4. 12. 2.) 추가 기소 (25. 3. 19.)
6	F (30세)	현장실장	- '23. 12.~'24. 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200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40명을 상대로 합계 18억 5,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[범죄단체 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5. 1. 10.)
7	G (31세)	현장실장	- '24. 3.~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104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합계 12억 5,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5. 1. 10.)
8	H (28세)	현장실장	- '24. 4.~8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4개를 전달하고, 대표통장 42개를 개설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합계 5억 3,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5. 2. 10.)
9	I (33세)	현장실장	- '24. 5.~7. 대표통장 유통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표통장 103개를 전달·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25명을 상대로 합계 11억 4,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사기방조]	구속 기소 (25. 4. 7.)